



SARANG

답사기 02-03

히로시마 건축물 탐방 ① _ 평화기념공원 내 건축물

전북 지역 뉴스 04-05

전북 정읍시, 각 건축 전문분야 총괄계획가 4명 재위촉
전북 익산건축사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전주대 건축학과 심세보 교수, 건축개인전 'Hit et Nunc: 시간과 장소' 개최

광주 지역 뉴스 06-07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공고
광산구,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남 지역 뉴스 08-09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 및 선정계획 공고
전라남도건축사회, '2025년도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고흥군청, '군민 맞춤형 건축인허가' 컨설팅 운영

인터뷰 10

'Less is more' 그의 설계를 통한 모두에게 행복을 주기 바라는 건축사

설계공모 11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호연관 증축공사 설계 공모

독자광장 12

한 편의 시 _ 겨울 바다의 외침
한 장의 사진 _ 설천봉 상제루
책 소개 _ 더 인간적인 건축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2.183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히로시마 건축물 탐방 ① _ 평화기념공원 내 건축물

이동희 교수 /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평화기념공원 전경

‘뚝, 뚝뚝’ 학생들이 연구실 방문을 두드리며 살며시 고개를 안으로 들어민다. 그 러고는 불쑥 묻는다. “교수님 일본 안 가실래요?” 이야기의 요지는 대학의 ‘글로벌 전공체험 프로그램’에 응모하려는데, 만약 선정된다면 일본으로 함께 건축탐방을 가자는 것이었다. “일본 어디? 난 안 가본 데가 거의 없는데...”라고 하니, “교수님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하시면 저희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의 원류와 기억을 담는 건축 탐방’이란 주제로, 방학 때 학생들 세 명을 데리고 예정에 없던 일본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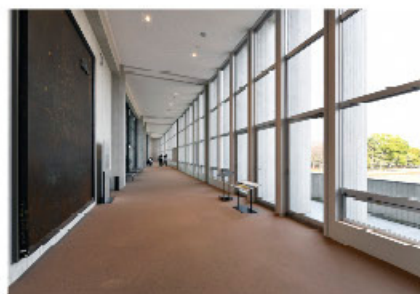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일본에서 약 10년 동안 유학생과 연구원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웬만한 규모의 도시들은 거의 다 방문해 본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처럼 발길이 닿지 않던 지역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혼슈(本州)의 남서부에 위치한 ‘히로시마(広島)’이다. 여행 당일 그곳으로 떠나는 비행기 좌석에서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히로시마의 대표 건축물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일본의 다른 도시들이 그러하듯 히로시마에도 유명 건축물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짧은 일정 안에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 몇 가지 큰 주제로 묶어 탐방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했다. 그래서 우리는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 내 건축물, 대표적 미술관 건축물, 일본 전통 건축물’을 주요 탐방 대상으로 잡고, 시간이 허락하면 다른 건축물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역사상 최초로 원자 폭탄이 투여된 것을 계기로, 그 비참함과 피해 실상을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조성되었다. 1949년 공포된 ‘히로시마평화기념도시건설법’에 근거해 1950년부터 1955년까지 12만 제곱미터의 방대한 부지에 기념 공원과 시설 정비에 차례차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 개의 축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배치된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히로시마 평화도시기념비(원폭 사물자위령비), 원폭돔(구, 히로시마현 산업장려관)’의 세 건축물이다. 평화기념자료관은 도쿄대학 조교수였던 단계 겐조(丹下健三, 1913~2005)가 1949년 평화기념공원과 그 내부시설 설계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돼 실현된 작품이다. 1951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1955년에야 완성하였다.

단계는 청소년 시절을 히로시마에서 보냈는데, 그때 구제고등학교(현, 히로시마 대학부속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국제건축설계공모안(소비에트 팔레스)을 보고 충격을 받아 ‘건축의 길’을 택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그는 도쿄대학을 거쳐 르 코르뷔지에의 일본인 제자 마에카와 쿠니오(前川國男, 1905~1986)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교수로서 다시 대학으로 돌



평화기념자료관 배면 우측 외관



평화기념자료관 2층 복도



평화기념자료관 2층 전시실



평화기념자료관 피로티 사이로 보이는 원폭돔



평화도시기념비 정면의 포물선 형태 디자인

아와 마키 후미히코, 구로카와 기쇼, 이소자키 아라타, 다니구치 요시오 등의 걸출한 제자들을 배출했다. 1987년 일본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으며, 오늘날까지 일본 건축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남아 있다. 평화기념자료관에는 그가 존경하던 르 코르뷔지에의 설계 작품들, 특히 마르세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1952)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형적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 건축물 1층을 개방하며 직사각형 본체를 공중에 띄워 놓은 점, 필로티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기둥의 육중함과 불규칙성 그리고 물성을 그대로 노출한 점이 유사하다. 또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조형 방법이나 본체의 양쪽 벽체에 루버를 설치해 빛의 유입 각도를 조절한 점이 다비타시옹과 거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으로서, 르 코르뷔지에의 콘크리트 표면에서는 거친 시멘트 느낌이 나는데, 단계의 콘크리트에서는 부드러운 나뭇결 느낌이 난다는 것이다. 그것이 화혼양재(和魂洋材), 즉 서양의 재료(기술)에 일본의 혼(사상)을 넣는다라는 사상의 결과물인지는 몰라도, 훗날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1941~)가 그 콘크리트 표면을 종이(和紙) 질감으로 한 번 더 변안한 것을 생각하니 새삼 흥미롭게 다가왔다.

평화기념자료관의 1층 필로티나 2층 복도 한가운데에서 원폭돔 쪽을 바라보면 그 중간지점에 포물선 형태의 평화도시기념비가 보인다. 원래 모양은 단계가 일본

계 미국인 조각가 노구치 이사무(野口勇, 1904~1988)에게 의뢰해, 고분(古墳)시대 가형(家形)토기에서 영감을 받은 말안장형으로 디자인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은 '평화기념공원심의회'에서 '일본인이 아닌 미국인 작품'이란 이유로 거부되었고, 현존 작품은 단계가 노구치의 말안장과 같은 역U자형 아이디어를 계승해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1952년 3월에 착공해 8월 6일에 개막식을 했으며, 처음에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었으나 나중에 석재(御影石)로 바뀌다시 만들었다. 위령비에서 원폭돔 쪽으로는 기다란 '평화의 못'이 조성되어 있고, 그 끝머리쯤에 꺼지지 않는 '평화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일렁거리는 물결에 투영되는 모습이 제법 아름답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주요 관람 동선은 그 앞의 큰 도로인 헤이와 오도리(平和大通)로부터 진입해, 일직선상으로 배치된 '폭풍 속 모자상(동상), 기도의 샘(분수), 평화기념자료관(전시관), 평화도시기념비(위령비), 평화의 불(등불)'을 차례로 거친 후, 모토야스강(元安川) 건너편에 있는 원폭돔까지 이어진다. 원폭돔은 히로시마의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로, 체코 건축가인 안 레첼(Jan Letzel, 1880~1925)이 설계했다. 철골철근 콘크리트와 붉은벽돌을 병용해 3층과 5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1915년 4월에 완공되어 히로시마현 물산 진열관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산업 장려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5년 8월 원자폭탄을 맞아 뼈대만 남았던 것을, 1966년 히로시마시의회에서 보존을 결정한 후, 모금 활동에 의한 보강공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에서 건축물 보존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이 건축물은 1996년 12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폭풍 속 모자상과 평화기념자료관



평화기념자료관 정면 야경



평화기념자료관에서 바라본 평화도시기념비와 원폭돔



평화기념자료관과 평화도시기념비 야경



원폭돔 전경



평화기념자료관 피로티 기둥 배치

평화기념자료관 2층 벽체의 나뭇결 무늬



평화도시기념비 측면의 말안장 형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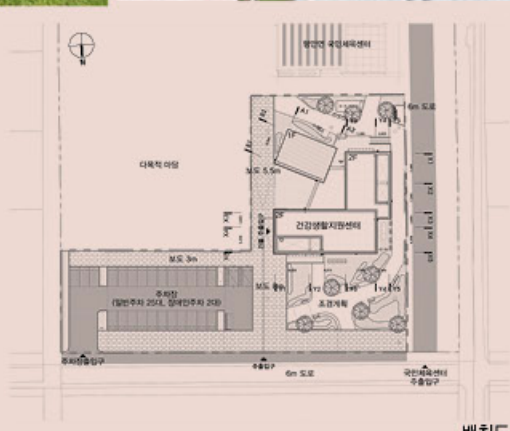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성영 건축사 /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0, 1-3층
Tel. 063-252-3378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109-8 / 대지면적 : 3,846㎡ / 건축면적 : 621.02㎡ / 연면적 : 870.61㎡
규모 : 지상 2층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치장벽돌, 알미늄패널, 금속강판, 로이복층유리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본 대지는 행안면의 국민 생활, 편의, 행정시설이 집약되어 들어서는 요충지의 중앙에 위치한다. 각 시설의 복합적인 개발여건을 고려하고 수용이 필요하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단순히 한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체육센터, 민사무소, 해양경찰서, 학교 등 거점시설과 연계된 행안면의 생활편의시설이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주변거점시설과 연계성이 높은 공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건강서비스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을 매개로 주민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며, 시설의 가변성, 사용/접근의 편의성 및 상호시설 간의 입체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장으로서 지역거점으로 계획하였다.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건물유지보수 절감(내부식성)
철근대비 초기균열 1/3감소
탄소배출량 45% 저감
자재비 절감
녹색건축을 가산점혜택

시공사

중대재해 예방(낙하, 감전)
철근 대비 1/2 중량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시공비용 절감(인건비, 장비비)
물류비절감(철근대비 60% 절감)

건축사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친환경자재 인증(EPD)
품질인증(K마크 Q마크인증)
고강도, 경량성, 내부식성, 비전도성자재
사회구성원보호(경량자재)

근로자

근골격 질환 예방(경량자재)
작업 피로도 감소(열차단성)
사회적 소외층 일자리창출
여성, 고령자 작업 가능

"조달청 우수/혁신 제품 지정" (국토부 핵심전략산업 선정)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 (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 (한국도로공사 데이터)



통영 스타벅스



함평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철근근 적용

KECO 호남 총판점

광 주 권 061-371-1233
전 북 063-223-8800
서부 목포 010-3638-1882
동부 여수 010-2925-7777
제 주 도 010-2981-4444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전북 정읍시, 각 건축 전문분야 총괄계획가 4명 재위촉

공공건축 2명, 공공디자인 1명, 경관조명 1명...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경관조명 분야의 전문가 4명을 총괄계획가로 재위촉했다.

정읍시는 2020년부터 도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재위촉된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물 분야 2명, 공공디자인 분야 1명, 경관조명 분야 1명으로 이들은 전문성과 식견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다시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총괄계획가 제도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경관조명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추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획 및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정읍시는 도시 경관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읍만의 특색을 살린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정읍만의 정체성을 살리고 통일된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총괄계획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건축사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



(사진 = 전북 익산건축사회 제공)

전북 익산건축사회가 지난달 23일 익산시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다리로움 나눔 공간에 전달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 익산건축사회 안영목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자 회원들과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에 앞장서는 익산건축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익산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건축사회는 1965년 설립됐으며 익산 지역 건축사사무소 5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건강복지센터와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사랑장학재단 등에 기부하며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주대 건축학과 심세보 교수, 건축개인전 'Hit et Nunc: 시간과 장소' 개최

13일부터 20일까지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심세보 교수가 'Hit et Nunc: 시간과 장소'라는 주제로 개인 전시회를 13일부터 20일까지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심 교수의 세 번째 개인전으로, 라틴어로 '지금, 여기'를 의미하는 Hit et Nunc(히트 에트 노크)를 통해 건축에서 시간과 장소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심세보 교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작품을 비교하며 건축가로서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세월 속에서 다듬어진 철학과 표현을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20년 전 미국에서의 대학원 시절에 형태적이고 개념적인 도전으로 주목받았던 작품들과 최근 국내외 건축공모전에 출품된 보다 실현 가능한 작품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이 디자인 철학에 미친 영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 교수는 "건축이 단순히 공간을 설계하는 작업을 넘어, 시대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건축 언어는 심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요소를 아우르며 변화해왔다"고 말한다.

이번 전시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에게 건축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건축이 개인의 여정과 시대의 맥락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 구도심 '방화지구' 37년 만에 해제

해제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자산 보존가능...



(사진 = 군산시 제공)

전북 군산시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근대건축자산(목조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멸실을 막기 위해 지정된 군산시 구도심(영화·월명동·신창동 일대) '방화지구'를 37년 만에 해제한다.

'건축자산진흥구역(32만7,456㎡)'은 근대건축자산의 보존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지정됐으며,

이곳에서는 목조구조 및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 지정된 '방화지구'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건축법에 따르면 '방화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수리하려면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콘크리트나 석조·철강 등을 사용,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방화지구'에서 근대건축물 또는 목조 건축물을 매입해 목재를 써 증·개축하면 불법이다.

같은 영화·월명·신창동 일원이지만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내화 자재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유지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러한 실정에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보수해도 불법으로 하거나 철거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방화지구 지정 요건 불부합 등을 들어 시의회와 협의 후 전북자치도에 '방화지구' 해제를 요청했으며, 이번 해제로 근대건축물의 훼손 및 멸실을 막고 구도심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자산을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방화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동, 월명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현재 월명동 181채, 영화동 177채의 목조 건축물이 남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5년 3월 13일 (시간 추후 공지 예정)
- 장소 :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 부의안건 :
 - 가. 제 1호안 : 2024년도 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
 - 나. 제 2호안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다. 제 3호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강지희 건축사 / 시선 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21-7
- 남상웅 건축사 / 더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6길 4
- 이다혜 건축사 / DH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8, 2층 201-4호
- 정송이 건축사 / 토리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47, 503호
- 오찬종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중용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간로 19, 302호

• 변경(사무소명, 사무소형태, 소재지)

- 성현주 건축사 / 더블유엠 건축사사무소 → (유)티피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4길 10, 101호

• 전입

- 김용준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사야 / 전북 군산시 설림2길 34-3, 3호

• 결혼

- 소태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호건축 / 아들 결혼 - 2025년 02월 08일(토)

• 부고

- 김일중 건축사 / (유)제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01월 16일(목)
- 송은정 건축사 / 이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01월 22일(수)
- 이상규 건축사 / 일원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25년 01월 24일(금)
- 조달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반 / 모친상 - 2025년 02월 05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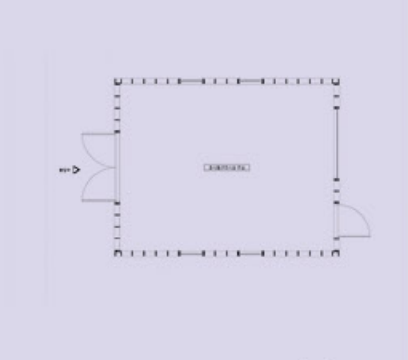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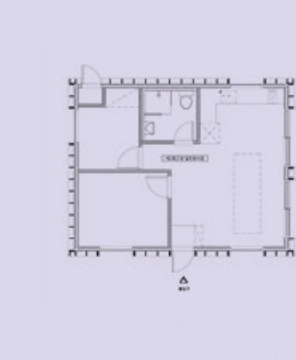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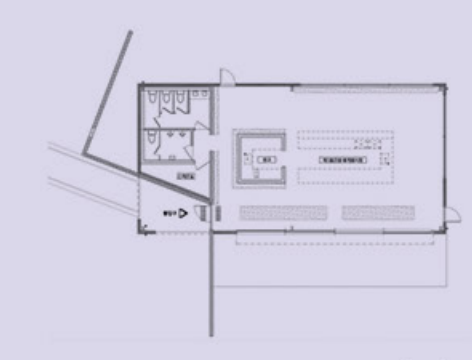
백운26 카페

소상용 건축사 / 소아키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17-13, 301호 / Tel. 062-456-2121



“백운26 카페는 넓은 정원을 품은 공간으로, 설계의 핵심은 이 아름다운 정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창을 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원의 능선을 따라 창을 열어 자연의 흐름을 실내에서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풍경이 더욱 극적으로 펼쳐지도록 공간의 시퀀스를 세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방문객이 처음부터 정원의 전경을 바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슬로프를 따라 카페의 입구를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시야가 열리도록 하여 정원 뷰의 감동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대지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덕천리 347-1 / 대지면적 : 4,100.00㎡ / 건축면적 : 268.89㎡ / 연면적 : 268.89㎡
건폐율 : 6.56% / 용적률 : 6.56%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일반철골구조, 목구조 / 주요 마감 : 스타코마감



배치도

1층 평면도(본동)

1층 평면도(분동)

1층 평면도(온실)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공고
예비후보자 1인 등록... 본 등록 기간 오는 2월 21일까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5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공고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5년 감사선거에 다음의 정회원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입회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다름

성명	사진	사무소명
윤대두		제이원 건축사사무소

2025. 1. 31.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길전)은 지난 1월 31일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전 회원 공문 및 문자를 통해 2025년 광주건축사회 감사선거 예비후보자를 공고했다. 이번 감사선거 예비후보자로는 윤대두 건축사(제이원 건축사사무소)가 1인으로 등록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1일까지 감사후보자 본 등록 기간이 이어지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별개로 감사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감사선출은 오는 3월 21일 광주건축사회 제38회 정기총회에 진행한다.

광산구,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건축법령 및 행정절차 및 심의 상담 예정...



(사진 = 광산구청 제공)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상담으로 확대 개편했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행정절차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는 건축법령과 행정절차 안내 역할을 했던 상담창구를

현장성이 요구되는 건축 특성을 반영해 필요 시 건축사가 직접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날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재능기부 건축사 20명을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상담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광산구는 평소 민원 상담 빈도가 높은 공단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소상공인 자영업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중점적으로 상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 구청 5층 건축과에 설치·운영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현장 조연 필요 시 전화 예약(062-960-6400)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가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어려운 건축 민원에 대해 조연해 주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재난,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30곳과 자치구 건축물 안전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과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침 및 매뉴얼 개정사항, 무량판 구조 건축물 점검 장비 및 점검방법, 건축물 정기점검,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점검기관 지정 절차와 정기점검 결과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점검기관의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오는 3월 5일부터 18일까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기술인력과 점검장비를 확인하고, 지역 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점검을 지속 추진해 광주시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설계 재능기부 업무협약

양병범 건축사(주)휴먼플랜 건축사사무소, 임태형 건축사(주)플랜 건축사사무소...



(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첫 공간 마련을 재능기부로 시작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주)휴먼플랜 건축사사무소, (주)플랜 건축사사무소와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설계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양병범 (주)휴먼플랜 건축사사무소 대표, 임태형 (주)플랜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형중 인문도시광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노벨상과 인문도시 광주’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재능기부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시는 노벨문학상 수상은 모든 시민의 기쁨이므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공간을 마련한다면 더욱 가치가 빛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건축사사무소는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지원, 건설공사 추진 시 설계 의도 구현 등에 상호 협력해 추진한

다. 또 인문도시광주위원회 등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간을 구성할 방침이다.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인문도시 광주의 저변 확대와 인문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를 찾는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큰 만큼 방문객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북카페 등 거점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올해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 공사에 착공해 12월 개관 예정이다. 공간 구성 및 내부 콘텐츠는 인문도시광주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과 협업을 통해 설계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설계 재능기부로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만나고, 80년 오월의 광주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전북·제주건축사회, ‘호남·제주권 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건축업무 상호 협력과 법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개진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현군출)는 지난 11일 유대를 강화하고 건축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 법·제도개선에 대해 통합된 의견개진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시·도 건축사회는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회원자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연구 협력과 각 건축사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세미나 포럼, 교육 등에 대한 지원 등 관련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호남·제주권 건축사회의 상호 협력으로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입회

- 주 창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 / 광주 동구 제봉로 137, 1층
- 정학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수 /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72, 6층
- 서주선 건축사 / 신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 광주 서구 화운로142번길 10, 지하 2층 상가8-2호

•변경(소재지)

- 김성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규성 / 광주 북구 죽봉대로 206, 3층 301호

•결혼

- 박성욱 건축사 / 스퀘어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5년 2월 09일(토)
- 이 철 건축사 / 가인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5년 2월 22일(토)
- 김영호 건축사 / 서강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2월 22일(토)
- 조준호 건축사 / 일호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3월 01일(토)

•부고

- 김 현 건축사 / THE S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2월 11일(화)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목포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공채현 건축사 / 현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양율로208번길 2, 203호
Tel. 061-802-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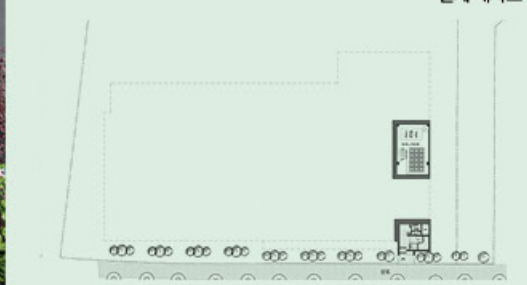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외 3필지 / 대지면적(중축): 6,789.40㎡ / 건축면적(중축): 2,476.41㎡ / 연면적(중축): 4,990.27㎡
건폐율(중축): 30.61% / 용적률(중축): 82.86% /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용도: 자동차관련시설 / 구조: 일반철골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시청사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청민
원인과 직원들에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근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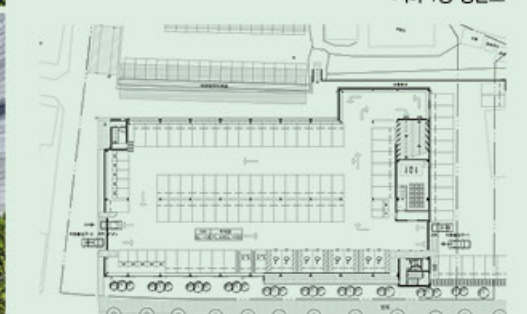
주차타워 건립 시 기존지형의 조건을 유지하
면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건물배치와 보
행자(장애인)동선을 목포시청 본관동으로 동선
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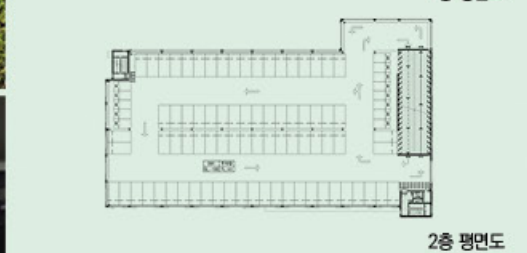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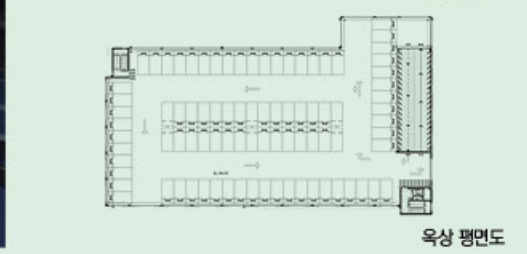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옥상 평면도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 및 선정계획 공고

민간·공공부문 각 5개 내외 작품 시상계획...



(사진 = 스막집 / 전남 우수건축물 최우수작(민간 부문))

전라남도는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 및 선정계획'을 공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전남도는 접수 전까지 약 3개월간 도민과 관계자의 관심을 높이

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 첫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 민간건축물 발굴에 힘쓴 전남도는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까지 포함해 공모 대상을 확대,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공공 부문 각 5개 내외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건립 시기에 상관없이 전남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 부문은 전남도, 시군, 교육청 등이 시행하거나 조성한 공공건축물 중 준공된 지 5년 이내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건축주(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메일로 접수가능하며 공모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은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을 바란다"며 "전남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2025년도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19일 10시 30분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44조 제2항 및 전남건축사회 회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는 3월 19일 10시 30분에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도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일반·특별회계 회계결산과 2025년 일반·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과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 1명과 대의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한 퇴임 임원 공로패와 공무원 감사패 수여식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흥군청, '군민 맞춤형 건축인허가' 컨설팅 운영

효율적인 건축 업무지원 안내 예정...



(사진 = 고흥군청 /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건축 인허가 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건축업무 지원을 위해 군민 맞춤형 건축인허가 컨설팅을 운영한다. 최근 건축인허가 후 법적 요구사항이나 추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해 설계 변경 누락이나 허가 조건 미준수 등 위법행위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마련했다.

이에 군은 건축 인허가 필증이 교부될 때마다 건축주에게 인허가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를 발송해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건축 인허가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건축직 공무원 5명이 각 권역을 전담해 건축행위 가능 여부, 설계 변경, 사용승인서 접수 등 필수 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건축인허가 컨설팅을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관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적 준수를 강화, 군민의 재산 보호와 사회적 건축 질서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 '건축물 해체 전문심의위원회' 신설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여 건축 행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



(사진 = 함평군청 / 함평군 제공)

전남 함평군이 건축물 해체 허가 심의를 전담하는 '건축물 해체 전문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함평군 건축위원회가 해체 허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이번에 전담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신설된 전문심의위원회는 건축 구조와 해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건축직 사무관을 포함한 당연직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꾸려지며 이들의 임기는 2027년 10월 20일까지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심의를 통해 피해 방지와 사고 예방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소모를 줄이고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전문심의위원회는 군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 유령 건축물에 대한 정비 실시

분기별로 직권말소를 추진 등 연내 완료할 방침...

전남도 해남군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유령 건축물'은 건축물은 해체·멸실했으나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과의 불일치로 건축물 통계가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건축 인허가 시 대상부지에 유령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말소신청을 진행해

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유자 상속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말소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11~12월 동안 도로명 주소와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대조 분석해 총 6,837건의 1차 자료 추출을 마쳤고 올해 1월 위성사진 대조를 통한 2차 분석을 통해 총 2,860건 결과를 추출했다.

군은 결과를 토대로 올해 1분기부터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직권 말소를 추진해 유령건축물 일제정비사업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상지별로 읍면 현장점검과 소유자 신청 안내 및 통보,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누수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 70% → 80% 상향...

전남도가 지난 2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던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규제 완화가 올 상반기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남도는 농공단지 70곳에 1,217만 8천㎡ 규모의 건폐율에서 최대 37만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남도는 두 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규제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전상정과 3차례 심의 대응 등 국고부와 함께 규제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률도 개선돼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 484개 농공단지에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규제 개선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남경욱 건축사 / 새삼 건축사사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66, 1층
- 강포구 건축사 / 가나다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4길 3-14, 302호
- 유종만 건축사 / 현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18, 2층

• 진출

- 선명숙 건축사 / (주)다경이앤씨 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126, 20층 2005호
- 고수진 건축사 / 오브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경열로 144, 4층

• 근무처 변경

- 박세진 건축사 / (주)예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선원4길 7-9, 4층

• 부고

- 정은혜 건축사 / 바른 건축사사무소 / 시부상 및 시모상 - 2024년 12월 29일
- 이대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비드 / 부친상 - 2025년 1월 9일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조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Less is more’ 그의 설계를 통한 모두에게 행복을 주기 바라는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디램 최준하 건축사와의 만남



최준하 건축사 (전남)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2021년 봄에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학교 선배님이시자 개소 직전 직장의 대표 건축사님께서 합격하고 딱 하루만 좋았다고 하신 게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었거니 했지만, 막상 합격하고 아내와 서로 고생했다고 안아주는 시간도 잠시 그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알아차리기까지는 만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정하고 임대하는 것부터, 개소 자금 준비, 그리고 사무소명 짓기까지 말 그대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합격만 하면 다 알아서 술술 풀릴 줄 알았던 제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디램 내부

개업준비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사무소명 짓기였습니다. 건축사로서의 마음가짐과 나아가야 할 사업방향과 설계 철학을 담아 낼 수 있는 이름을 짓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지만 처음과 끝을 생각했습니다. 첫 마음가

짐을 가지고 끝까지 가자는 생각! 건축과에 입학하면서 가장 먼저 입력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Less is more’ 이 한 문장에서 저의 설계에 대한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축가의 문장에서 착안하여, 그를 동경하며 방향을 가지는 의미로 Design Less, aim more – DLAM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 설계의 시작이자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저의 사무소 이름입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저의 꿈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는 겁니다.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건축사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 설계가 저와 인연을 맺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저에게 의뢰한 건축주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챙기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고, 배움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꿈과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업무대가입니다. 처음 마음가짐으로 설계를 하고 고객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꿈같은 설계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 업무대가입니다. 설계에 마음을 쏟고, 열정을 다해 설계를 완료하고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기보다 현실의 설계비에 조금씩 처음의 마음가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 건축사로서 열정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싶으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보니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건축주에게 정당한 설계비를 제시하는 게 오히려 눈치를 봐야하고, 요즘같은 경기에는 더 싸게 해서 수주라도 해야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설계대가 기준의 확립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설계 작품에 120% 스며들 수 있는 현실이 다가왔으면 합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건축물이 있으실까요?

가장 존경하고 목표로 하고있는 건축가 1순위는 미스 반 데 로에 (Mies Van Der Rohe)입니다. 저의 설계 역시 그가 추구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역시 그의 대표적인 작품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일리노이 공과대학 크라운 홀입니다. 대학교 입학 후 아무것도 모르는 건축과 학생이었던 저에게 미스 반 데 로에의 건축개념은 저의 머리에 각인되었고, 그 순간부터 제 설계 개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가볍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라는 저의 설계 개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미스 반 데 로에는 앞으로도 저의 1순위일 것입니다.



광양시 광영상설시장

광영동 단독주택 신축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호연관 증축공사 설계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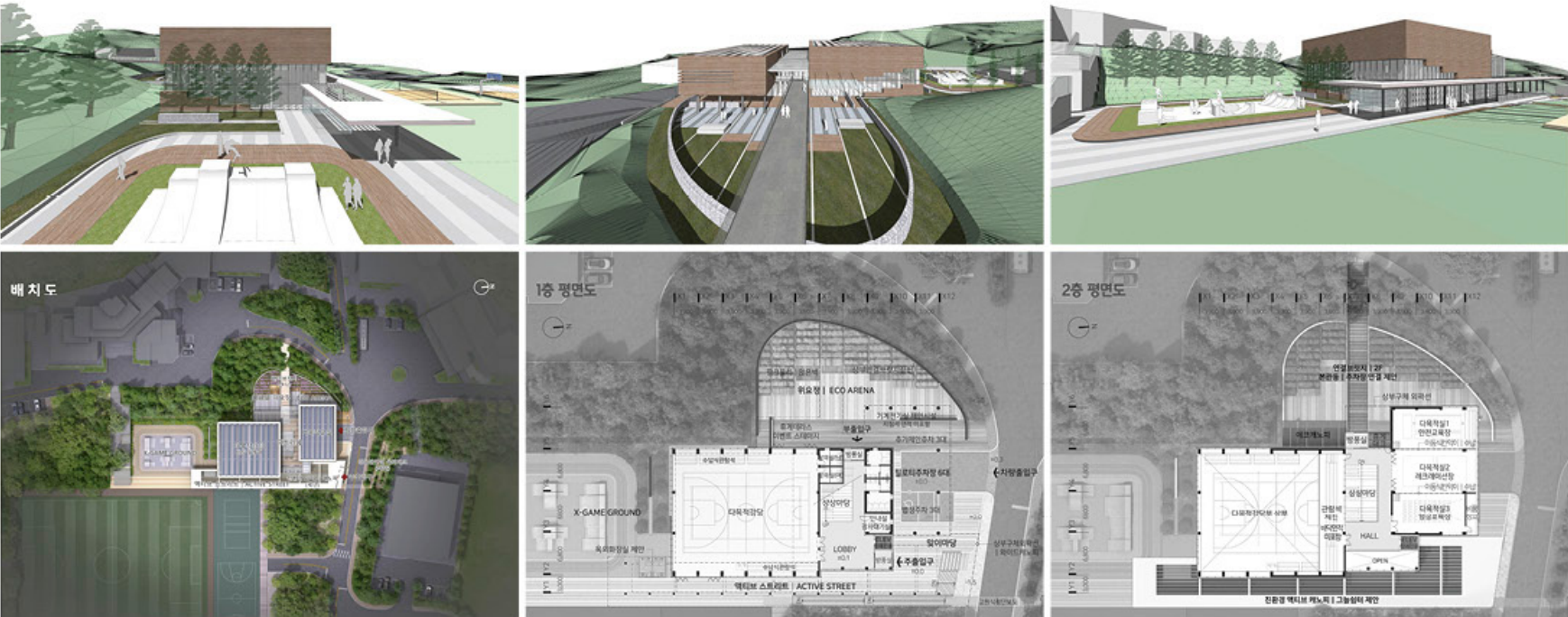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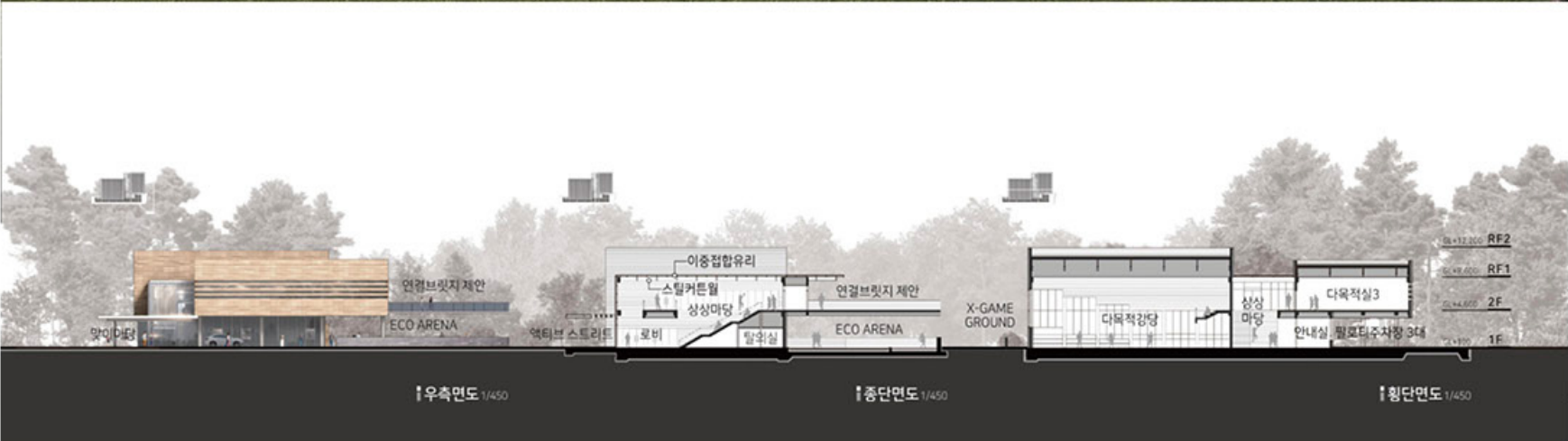
호연관을 운동장 옆 부지에 별도로 증축하여 시설 안전 확보와 정상적인 학생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수련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정금호, [심사위원] 김형중, 이정원, 조재훈, 정준현

- 대지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
 - 대지면적 : 134,510㎡(금차 계획부지 면적 : 2,040㎡)
 - 연 면 적 : 990㎡
 - 건 폐 율 : 4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규 모 : 지상 2층 이하
 - 용 도 : 교육연구시설(다목적 강당)

당선작

김하영 건축사 / 재이헌 건축사사무소
+ 박현우 건축사 / 동주현 건축사사무소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겨울 바다의 외침

멀리서 설 새 없이 달려온
인내의 마라토너
육지로 올라오고 싶어
오늘도 손을 내밀며
잡아 달라고 출렁인다

뿌연 하늘가
미지의 갈매기 갈 바를 모르고
듣고 싶었던 새들의 재잘거림
떠나고 있었네

눈물처럼 하얗게 내리는
겨울바다의 함박눈
곁에 없는 그대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네

차가운 해풍에
눈물마저 얼어 버리고
바다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
허무의 진실마저 흩어져 버리네

나를 밀쳐내는 그대의 눈물
나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언제나 그대의 진실된 눈빛

앞으로 살 날은 적지만
두 손 모아 기도를 마치고
한 달이 하루 같고
하루가 한 시간 같은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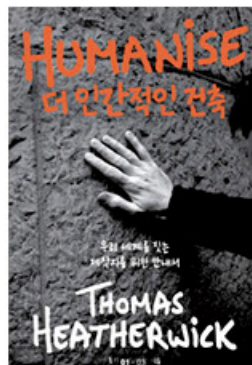
염분이 섞인 겨울 바다에서
나를 유혹하는 파도의 손짓
사랑하는 영혼 간직한 채
출렁이는 수심 속에
깊이 묻어 두고 간다.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더 인간적인 건축

토마스 헤더윅 / 알에이치코리아 / 2024. 11. 20.



《더 인간적인 건축》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토마스 헤더윅이 제시하는 건축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은 책이다. 헤더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이 우울하고 영혼이 없는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또한 도시와 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 행동,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특히 직선적이고 딱딱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인간의 감성적인 경험을 억누르고, 그 결과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나치게 기능적이고,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헤더윅은 그의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건축물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건축의 본질을 다시 되짚어 본다. 그는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을 결합해 건축이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감성적 상태를 고려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해준다.

이 책에서 헤더윅은 수백 장의 건축물 이미지를 통해 인류가 처한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는 왜 사람들이 아프고 불행하게 만드는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이러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직선적이고 기계적인 건축물들이 인간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그가 주장하는 '인간적인 건축'은 단순히 외관이나 기능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그에게 건축은 단지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매개체여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그는 건축물의 형태와 색상, 재료가 사람들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감각적이고 감동적인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단순히 건축가나 디자이너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다. 도시와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건축과 디자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

이 책을 지은 저자인 헤더윅의 철학을 통해 '인간적인 건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책에서 소개된 다양한 사례들인 그가 설계한 혁신적인 건축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따분하고 기계적인 공간들을 통해, 건축이 어떻게 감정과 경험을 창출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건축이 사람들의 감성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우리가 직면한 도시와 건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영감을 제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인간적이고,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한 장의 사진 _ 정범수 건축사 作 / 남북 건축사사무소



설천봉 상제루

2024년 11월 30일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